

뿌진름 이사진

해남 문내면 현장답사

#태양광 발전

#소통문제

#직접 가보기



#태양광 발전 #소통문제 #직접 가보기

해남 문내면 답사코스



출발!

해남신문 기자

해남 문내면 주민

혈도 간척지 대책위원회

찬성기업

솔라시도 발전소



혈도 태양광 수상한 돈거래

문내 태양광발전소 건립 싸고 '찬반양론'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승인 2021.01.18 15:50:12



작년 희망에너지에 민원협조 공문
황산 이장단 임원, 1800만원 받아
상당수 이장 결산과정 뒤늦게 알아
연말 27만원씩 이장들에 현금 배분
본지 취재하자 사업자측에 반환

황산면 이장단 단장과 총무 등 전직 임원들이 문내 혈도간척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는가 하면 이를 결산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지난해 연말 이장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것으로 드러나 돈을 받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당수 이장들은 이장단 임원들이 사업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이 돈 외에도 결산서에 추가로 빠진 금액도 있어 이장단 운영과 운영비 집행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산면 이장단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5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인 해남 희망에너지 측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았다.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다가 연말 이장단비 결산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다는 이의제기가 있자 뒤늦게 이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이장단 임원들은 단합대회나 선진지 견학 등과 관련한 경비가 필요해 희망에너지 측에서 후원비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1 해남신문 기자

-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과 현황을 듣게됨.
- 해남희망에너지(주)에서 발행한 팜플릿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됨.



#2 혈도 간척지 대책위원회

- 태양광 설치 지역 주민상생방안인 '이익공유제'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됨.
-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유동적이고 적합한 보상이 필요하며, 보상체계에 대한 법률이 필요함.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안)



#3 사업 진행 기업

모아건설 측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자가 주민, 지자체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듣고 싶어서 컨택을 시도하고 방문했으나 2차례 거절되었음.



#3 솔라시도 발전소

- 공청회의 경우 규모와 빈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공청회를 진행하더라도 참석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강제성이 없음.
- 보상체계에 대해 정해진 법률이 없음.
- 주민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허가 되는지와 양식에 대한 기준이 없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 1) 발전 사업에 대한 확실한 법률의 부재
- 2) 주민 동의서에 대한 양식, 허가 기준 부재
- 3) 공청회의 규모, 빈도, 강제성 등의 기준 부재
- 4) 기업에 대한 불신